

경쟁 아닌 협력이 인류 번영 이끌었다

문명의 자연사

마크 버트니스 지음, 조은영 옮김



인간 중심으로 사고하는 사상은 철학에서부터 과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인간을 '특권을 가진 종'으로 생각했으며 그에 따라 문명을 특별한 '인간만의 것'으로 여겼다. 인간의 힘으로만 그 문명을 이룩했다고 보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이에 대해 마크 버트니스 브라운 대학교 생물학과 명예교수는 다른 관점을 제시한다. 저서 '문명의 자연사'는 인류 문명을 인간이라는 종이 자연환경에 대응하는 과정으로 해석한다. 농업과 의학, 정치, 종교 등을 매개로 문명과 문명이 발전해온 과정을 들여다보며 한편으로 문명의 기원, 발전 그리고 미래를 아우른다.

책에 대해 쏟아진 찬사가 표지 뒷면을 채울 만큼 가득하다. 그 가운데 '인간의 본성(들)'의 저자 폴 에얼릭은 "인류 문명의 발달과 궤적의 '큰 그림'을 이해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사회의 붕괴를 직면한 오늘날의 현실에 반드시 필요하다. 버트니스의 책은 오늘날의 교육이 무엇을 중심으로 다루어야 하는지에 관한 훌륭하고도 간결한 수업을 제공한다"고 의미를 부여한다.

사실 반세기 전만 해도 진화는 다윈의 자연선택이라는 적자생존 과정으로 받아들여졌다. 진화의 주요 요소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저자는 "경쟁이 아닌 협력이 가지는 필수적이고도 강력한 역할을 종종(심지어 과학계 내에서도) 간과한다"며 "생물 간의 협력적인 상호작용은 리처드 도킨스가 이기적 유전자라는 말로 함축한 자기중심적이고 경쟁적인 동인(動因)을 몇 번이고 초월했다"고 강조한다.



17세기 고래잡이가 유행하면서 고래기름과 제곱은 산업혁명에 불을 붙였다. 안 사레담이 제작한 판화. <까치 제공>

지구의 생명들이 만든 협력의 틀은 생물학적 체계를 결합하고 진화의 역사에서 주요한 변곡점을 만들었다. 아울러 인간의 능력은 바로 생명 세계와의 긴밀한 관계에서 기인한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책은 모두 3부로 구성돼 있다.

제1부 '생명'에서는 우주의 시작, 생명의 발생부터 문명이 태동하기까지를 다룬다. 진화의 이해와 문명의 역사와 관련된 주요 용어를 설명한다. 하나의 종으로서 인간은 자연에 대한 도전과 순응을 통해 역사를 만들었다. 그 과정에서 손과 뇌가 진화했으며 불을 이용하기 시작하면서는 먹이사슬의 최정점에 올랐다.

특히 인간은 언어를 발전시켰고, 동물을 사냥에 활용했다. 협력을 토대로 한 가족 집단이기와 농경시작은 농업혁명으로 이어졌다.

제2부 '문명'은 눈부시게 발전한 문명의 역사에 초점을 맞췄다. 저자는 인류 번영은 명백히 협력 덕분이라고 단언한다. '생명체들이 준비 경쟁과 협력을 통해서 공진화하는 것과 같은 과정'을 통해 인류는 도시를 건설했다. 물론 인류의 무대가 점차 확장되면서 부작용도 나타났는데 전염병 확산이 그것이다.

그러나 인류는 미생물 진화를 활용해 위기를 극복했다. 인간만이 발전시킬 수 있다고 믿었던 물리적, 계층적 구조 또한 자연계 법칙을 따른 결과다.

저자는 현재 인류가 처한 문제 원인을 진단하고 미래 방향도 제시한다. 제3부 '문명'은 인류가 생태계와의 공존을 무시하고 자원을 남용한 탓에 벌어진 부정적 양상에 주목한다. 또한 인류 발전에 영향을 끼친 인공지능을 다루는 한편 미래의 재앙을 예방하기 위해선 '협력'이 답이라고 강조한다.

〈까치·2만원〉

/박성현 기자 skypark@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너, 뭐 먹고 살겠니?=음식, 사람, 추억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김복 작가의 산문집. 짝사랑했던 체육 선생님이 사주신 돈가스, 친구들과 불화로 불쑥 떠난 여행에서 맛보았던 주꾸미, 프랑스 화가들과 함께 먹었던 막구수, 비오는 날 어머니가 부쳐주었던 채소 부침개 등의 이야기를 통해 저자는 "음식은 내 몸의 살이 되었지만, 사람들의 기억은 내 영혼의 살이 되었다"고 전한다. <이불·1만4000원>

▲오케스트라 좋아하세요?=작곡가이자 음악 프로듀서, 음악 에세이스트인 저자 미즈토미 도시로는 음악을 요리에, 지휘자를 셰프에 비유한다. 오케스트라 연주회의 매력은 어디에서 나오는지부터 오케스트라를 구성하는 악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각각의 역할과 기능은 무엇이며, 어떤 곡들을 연주하는지에 이르기까지 오케스트라의 모든 것을 알려준다. <열대림·1만8000원>

▲격변과 균형=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차관은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위기가 단순히 감염병 방역에서 파생된 일시적 혼란이 아니라 오늘날 세계경제와 한국경제가 맞닥뜨린 경제·금융의 위기와 보건위기가 결합된 '복합위기'라고 진단한다. 재정정책, 양극화, 가상자산, 탄소중립을 주요 키워드로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한다. <창비·1만8000원>



▲투명인간=허버트 조지 웰스가 1897년 출간해 세계적인 고전이 된 작품으로 최근 영국 오리지널 판본과 이정표 번역으로 새롭게 출간됐다. 첫 출간 후 SF라는 장르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네 번이나 노벨문학상에 노미네이트 됐으며 이기적인 문명에 대한 비판 의식과 왕정의 타락, 물질만능주의에 물들어가는 인간에 대한 사색을 담았다. <새움·1만3800원>

어린이·청소년 책



▲프레드가 웃을 입어요=그림책 작가 피터 브라운이 자유를 사랑하는 어린이, 프레드가 '나'의 모습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별거벗고 다니길 좋아하는 프레드는 취향의 선택지가 가득한 엄마 아빠 옷방에 들어가 즐거운 패션쇼를 벌이고 스타일을 갖춰 나간다. 프레드처럼 끝없는 가능성을 지닌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각자의 보물을 채울 수 있기를 응원한다. <사계절출판사·1만4000원>

▲모두 소중한=개미 같은 벌레부터 안경 쓴 소녀, 휠체어 탄 소년, 춤추는 할아버지까지... 취향과 생김새가 제각각 다른 존재들이 한데 어우러진 그림책이다. 필란드 작가 리사 칼리오는 '갈음'을 들

어다보며 우리들의 공통점으로 누구나 경험하는 감정의 격랑을 이야기한다. 우리는 똑같이 이 지구 위에서 밤과 낮을 겪으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점도 일깨워준다. <사계절·1만7000원>

▲도둑이 된 첫날=아옹이 형님과 그의 형제들은 도둑이 되기로 결심한다. 꿀꿀이는 먹다 남은 밥을 훔쳐 오고 명명이는 뼈다귀를 훔쳐 오고 여우는 공룡 알을 훔쳐왔다. 모두가 즐거워하던 그때, 경찰 아저씨의 등장으로 동물들은 감옥에 가게 된다. 아옹이 형님과 형제들은 하나둘씩 탈출을 시도하는데... 다만 작가 리우쉬공은 동물들이 감옥을 빠져나오는 과정을 재치 있게 풀어냈다. <봄봄출판사·1만4000원>

요리 통해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었던 시인이 쓴 에세이

식탁 위의 고백들

이혜미 지음



"어둠으로 빛을 감싸 매끈하게 묶어둔 일인용 우울 같다. 얼룩말이나 백호가 그려듯, 자신 안에 빛과 어둠을 모두 지닌 역할." 나에겐, 보랏빛 형광색이 꺼려져 어릴 적 기피음식 중 하나였던 '가지'에 대해 시인은 이렇게 말했다. 그는 "보이지도 않는 땅 속에서 엄청난 색깔을 지니게 된" 야채, '당근'에 대해서도, "점령하는, 물들이는, 뒤섞이며 휘저어지는, 강력한 전개. 하나의 거대한 세계관"인 '카레'에 대해서도 자신만의 언어로 이야기를 들려준다.

"요리는 점시에 쓴 시, 시는 종이에 담아낸 요리"라고 말하는 이혜미 시인의 첫 에세이집 '식탁 위의 고백들'

이 나왔다. 2006년 등단 후 시집 '보라의 바깥', '뿔뿔의 바닐라', '빛의 자락을 얻어' 등을 펴낸 시인은 "좋아해요, 말하고 싶은 순간마다 요리를 했습니다. 당신을 이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선언하는 마음으로 접시를 놓았습니까"라고 말한다. 타인을 마주하는 일이 두려웠고, 거식과 자폐와 실어와 폭식을 오가며 10대를 보냈던 그녀가 "혼자 꺼안고 있던 술을 내려놓고 함께 마주할 식탁을 향해 걸어들어간 시간들"은 "요리를 통해 조금 더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었던" 마음의 발현이기도 하다.

총 28개장으로 구성된 책은 전채, 메인 디시, 디저트가 어우러졌고 특히 사계절의 정취를 녹여낸 다양한 요리들로 시간의 흐름을 담았다. 저자는 아보카도, 달래, 당근, 토마토 등 식재료에 관한 글부터 파스타, 스테이크, 치즈, 스프와 스무 등의 본격적인 요리, 달콤한 디저트를 만드는 과정과 그에 따르는 단상을 책 한권에 담았다. '웰빙' '무사카' '멜란자' 등 다소 생소한 요리는 조리법을 상세히 소개하고 요리 과정을 담은 유튜브 동영상 클립도 제작했다. 또 감각적이고 아름다운 사

진은 이 책을 읽는 이의 입맛을 한껏 돋운다.

책은 요리책이면서, 길게 읊조린 시집이면서, 일상의 기쁨과 즐거움과 슬픔을 기록한 일기장 같은 느낌을 준다. 연어를 자르며 "미래를 향해 긴 염서를 쓰는 상상"을 하고, 카레를 만드는 것을 "외따로 떨어진 세계의 조각들을 모아 어땀겨튼 이음새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라 일컫는 시인의 글을 읽고 있으면 '요리'에서 출발한 무궁무진한 세계로 여행을 떠나는 기분이 든다.

마지막 글 '우리의 작은 땀이 무너지지 않도록'의 주인공 '커피' 관련 글 중 "이제 막 생겨난 검고 작은 분화구에 뜨거운 물을 부어 희고 연약한 구멍이 만들어지는 일은 창조자와 파괴자로서의 만족감을 동시에 선사한다"는 대목을 읽으면 오늘 내가 내리는 커피 한잔 속에 '내버넌딩 스토리'가 담겨 있는 듯한 생각이 든다.

연재 당시 "반짝이는 낱알들로 꾸며진 한끼를 대접받는 기분", "쉽게 보고 지나치는 대상을 다르게 보는 관찰력에 감탄했다"는 글들이 올라왔는데, 책을 읽다 보면 딱 그런 마음이 든다. <창비·1만4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품질보증
Q-Mark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02-51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